

두산
인문극장
2025



4.22-5.10

지역
LOCAL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by Martyna Majok

LOCAL

두산 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두산인문극장은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25	지역 LOCAL
2024	권리 Rights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2022	공정 Fairness
2020	푸드 FOOD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2018	이타주의자 Altruist
2017	갈등 Conflict
2016	모험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2015	예외 例外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2014	불신시대 The Age of Distrust
2013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당신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은 보통 경계가 나누어진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지리적 구분만이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관계, 문화가 축적될 때도 형성된다. 우리가 지역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장소와 공동체가 지역(LOCAL)이 될 수 있다. 2025년 두산인문극장은 '지역'을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지역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본다.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고 그곳만의 고유한 성격인 지역성을 갖는다. 고유한 성격은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다른 지역에 형성된 성격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만 작용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거리가 먼 곳들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다름' 때문이 아닌 '쏠림' 때문에 일어난다. '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치우침이 없는 말이지만, '쏠림'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소외나 차별, 심지어 소멸이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대표적인 불평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탄생해서 이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이 만들어진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지역을 인류학, 지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우리가 지역의 중심을 잡고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강연

연강홀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 과학기자, 《에피》 편집위원

4.7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4.14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4.21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 도시지리학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4.28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박찬일 / 요리사, 음식 칼럼니스트

6.9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양승훈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16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6.23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6.30

공연

Space111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작. 마티나 마이옥(Martyna Majok) / 번역. 유은주 / 윤색. 유은주 이오진

연출. 이오진 / 출연. 이주영 김의태 아마르볼드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작. 셀린 송(Celine Song) /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 연출. 이래은

드라마터그. 김지혜 / 출연. 경지는 박옥출 백소정 양대은 이미라 이휘 홍윤희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작. 윤미현 /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 연출. 이소영

출연. 강정임 박현철 송석근 윤현길 이지현 정대진

6.17-7.5

전시

두산갤러리

Ringing Saga

참여작가. 구동희 Donghee Koo 김보경 Boky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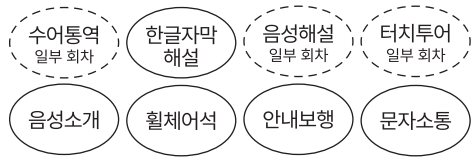
안진선 Jinseon Ahn 이유성 Eusung Lee 홍이현숙 HongLee, Hyunsook

6.4-7.12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By Martyna Majok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시놉시스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서로가 유일한 안식처가 된 두 십대, B와 G.
엄마의 귀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G는 B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결혼’을 계획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계획은 그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가장 가까웠던 서로의 관계를 위협한다.

수어·자막 안내



음성 안내



작 마티나 마이옥 Martyna Majok

연극 <Sanctuary City><Queens><Cost of Living><Ironbound>

수상

2023 오비상 극작 부문 <Sanctuary City>

2022 오프 브로드웨이 얼라이언스상 최우수 연극상 <Sanctuary City>

2019 수잔 스미스 블랙번상 최종 후보작 <Sanctuary City>

2018 풀리처상 드라마 부문 <Cost of Living> 외

* SANCTUARY CITY had its World Premiere at New York Theatre Workshop, Jim Nicola, Artistic Director, Jeremy Blocker, Managing Director, 2020

* SANCTUARY CITY was developed, in part, at the 2018 Sundance Institute Theatre Lab

“ 꿈을 향한 문이 닫히다.

마티나 마이옥의 가차없는, 감상에 매몰되지 않은 작품 ”

Martyna Majok's unsparing, unsentimental new play

-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 두 십대 청소년, 두 명의 미등록 이민자, 보답받지 못한 두 가지 형태의 사랑 ”

Two Newark teenagers, both undocumented immigrants, struggle with two kinds of unreciprocated love: the kind they feel for each other and the kind they feel for their country.

- 뉴욕 타임스 올해의 공연 *The New York Times' Best Theater of 2021*

“ 마티나 마이옥의 신작 연극은 두 명의 미등록 이민자 청소년이 처한 고군분투를 그린다.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들어낸 아픔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

Two young undocumented immigrants struggle in Martyna Majok's new play, which leaves Loren Noveck heartsick at the state of the world.

- 엑지언트 매거진 *Exeunt Magazine*

“ 마이옥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겪는 고통을 예리하게 조명하며,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가는지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풀어낸다. ”

Majok is here to comment on the strife of undocumented immigrants and put human faces to the ways in which the American Dream can slip into a nightmare.

-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생추어리 시티: 번역가의 글

1. 지역을 이야기하는 작가

‘지역(LOCAL)’. 처음 이 주제를 받아 마주한 후,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어떤 연극이 이 주제에 어울릴지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지역은 어떤 개념에 가까운지, 지역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방 소멸, 이민자, 지역 내 이주민, 유토피아, 식민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의 이름. 조금 더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 대해 꾸준히 말하는 작가들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이 마지막 문장을 따라, 마티나 마이옥과 그의 <생추어리 시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의 작가 마티나 마이옥은 폴란드 출생의 미국인 작가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와 뉴저지의 뉴왁(Newark)에서 유년기를 보낸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여럿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가의 전작 <아이언바운드(Ironbound)>,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생추어리 시티> 속 인물들은 모두 뉴왁에서 살아가는 노동계급 이민자들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그곳을 함께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마이옥의 대본은 그가 살아온 그 지역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2. 두 개의 생추어리 시티

생추어리 시티, ‘성역도시’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지역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법적 시민권보다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기에 미등록 이민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규범·법률·국경으로 구분되는 현대의 지역 위계 속에서 이 성역도시는 우리가 지역이라고 말하는 범위의 기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 경계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작품 속에서 G와 B가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뉴왁 또한 이러한 성역도시라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미국 내 다른 비우호적인 곳에서 보다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도, 단속과 추방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역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고, 막연히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생추어리, 성소 또는 성역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피난처와 보호막이 되어 주는 공간이라는 인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른 시선에서 대화를 거듭해 보며 과연 인물들에게 이 ‘생추어리’가 제공한 경계가

과연 온전한 보호였을지, 나에게 최소한의 방어를 베푸는 지역 바깥을 상상할 자유가 제한된 삶은 어떠하였을지 다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극 속에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또 다른 생추어리 시티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G와 B 두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자 만들어 낸 공간 또한 그들만의 성역도시, 생추어리 시티라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그 공간을 또 다른 지역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역이란 내가 속하기로 정한 것으로 정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나의 지역과 연결된 공연

모든 공연이 그렇겠지만 번역극의 상연을 앞두고 늘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여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다른 곳과 다른 시간의 관객들을 마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작품은 어떻게 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지역을 둘러싼 고민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뜻으로 이주했고 누군가는 타의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역은 이미 이민자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 속하고자 결정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G와 B, 그리고 헨리의 이야기는 20년 전 미국에 머무르지만 이것을 지금의 우리와 동떨어진 곳의 이야기로 볼 수도, 이들을 우리와 구분되는 타자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작가 마티나 마이옥은 작가 노트를 통해 ‘이 연극을 통해 관객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현실과 공동체 내부의 계급, 이민 문제를 성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4월과 5월의 ‘생추어리 시티’ 또한 우리의 지역,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하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출 이오진

호랑이기운 작·연출가

작·연출 <콜타임><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윤색·연출 <댄스 네이션>

연출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성공적인 직업생활>
<애 개 아파트><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외

작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외

수상

2023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예술부문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댄스 네이션>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댄스 네이션>

2022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콜타임>

2016 대산창작기금 수혜

대한민국은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인 ‘다민족 사회’입니다.
아시아 최초입니다.

내가 앉은 책상도 먹는 음식도 외국인들이 만듭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민 자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정체성 문제, 차별, 추방, 미등록 자녀의 거취 문제를 20년 전 미국을 배경으로 한 희곡에서 목도했습니다.

G와 B 그리고 헨리의 상황은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관객분들에게 그들의 슬픔이 더이상 남의 슬픔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극장에 와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속 ‘미등록 이민자’— ‘노동력’에서 미래를 꿈꾸는 ‘인간’으로

글로벌 경제와 민족주의의 부활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품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가 본격화하고 자본과 노동력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러한 신화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었고, 국가 간의 경제 격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이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 분야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력과 결혼이주민 등의 ‘생산연령인구’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2006년에 이르러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의 정책 용어로 등장했고, 이듬해부터 ‘혼혈인’ 대신 ‘다문화 결혼 자녀’라는 명칭이 공문서에 사용됐다. 2025년 현재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경제가 국경을 허물수록 국민국가의 시민들은 자신의 터전이 외부인들에게 침범당했다고 느끼며 더욱 경계를 굳힌다. 좋은 일자리와 복지는 축소되고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이민자를 밀어내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왔다. 불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먹었고, 극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파시즘적인 구호가 그 자리를 파고들었다. 이처럼 경제의 탈민족주의화와

정치의 재민족주의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동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귀환과 유럽 극우 정당들의 득세를 예로 들 것도 없이,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극우 정당이 32%의 득표율을 얻었다.

개인의 일탈만이 미등록 이주민 현상의 원인일까?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명 중 5.17명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들 중 15%에 달하는 40만여 명이 ‘미등록’ 상태로 존재한다. 미등록 이주민은 내국인도, ‘합법’ 외국인 노동자도 할 수 없는 일거리를 도맡아왔다. 그들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지에서 한국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지만,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미등록 이주민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준법 의식의 결여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로, 경직된 비자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만 보더라도, 한 해 약 1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제도를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전략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류 기간 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 준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만, 언어와 제도가 익숙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임금 체납·산업재해·폭력 등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쉽사리 일자리를 옮길 수 없다. 법 바깥에서는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법 안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생산의 도구가 아닌 삶의 주체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또한 까다로운 비자 요건으로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이들이 많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신청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단순 노동직에 취업할 수 있지만, 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난민 인정률도 극히 낮다. 최근 법무부는 2027년까지 미등록 이주민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까?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만이 반복될 뿐 이주민을 미등록 상태로 몰아넣는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의 젊은 노동력을 받기면서도, 이들이 꿈꾸고 살아갈 환경은

만들지 않는다. 이 땅에서 먹거리를 수확하고, 건물을 짓고,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들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단기 순환 노동자쯤으로 여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의 행복은, 그들이 비록 미등록 상태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공익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인구 감소·고령화·지방 소멸 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미 삶의 공간을 나누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일, 어쩌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새롭게 그려보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내 지역을 생추어리 시티로! 공거(共居)의 방법론

얼마 전 예멘 친구 K와 인천의 예멘 식당에서 라마단 이프타르(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K는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러 공장 일을 거쳐 3년 전부터 인천에서 중고 자동차 무역업을 하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로 알려진 2018년 여름 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주에 갔다. 전업주부, 교사, 기자, 요리사, 이발사, 무역상, 학생, 고급 공무원, 경찰서장, 군 장교, 다큐멘터리 감독, 은행원 등 이들의 직업은 정말 다양했고, 남성들이 다수였지만 45명 정도는 여성들이었다. K는 내가 만난 예멘인 중 한 명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전 세계의 정치 상황에 민감했으며, 한국 사회의 적대적 태도에 놀라워했다. 당시 예멘 난민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성폭력범, 가짜 난민으로 불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많은 국민은 난민법에 따라 이들이 난민 인정 절차를 공정하게 밟을 수 있도록 정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제주 지역민들은 자신의 아파트와 사무실을 숙소로 내주었다. 일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 역시 많았다. 성당과 교회는 난민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어 교실을 열었다. 그림 교실, 축구팀, 음식 나누기 모임에는 경쟁과 웃음이 피어났다. 어떤 어르신은 자기 동네에 예멘 사람 몇몇이 들어와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 4.3 사건 때 군인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한 친척이 있다며, ‘전쟁을 피해 온 이들을 어떻게 내치나?’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도 빛진 국가임을 일깨우는 말이다.

누구나 이방인에 대한 어색함, 두려움, 분노의 감정만큼이나 연민, 돌봄과 ‘함께 살아남’의 감정을 갖는다. 적대와 환대는 낮은 자와 집을 함께 나눠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갖는 동시적 감정이다.

‘생추어리 시티’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도시나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우호적’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환대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생추어리 시티는 연방정부의 이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지역으로, 여기서는 미등록 이주민도 학교,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단속과 범죄의 쉬운 목표물이 되지 않아 조금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법적 멤버십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운전면허를 따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는 등 평범한 일상으로 불안과 맞선다.

한국에는 생추어리 시티가 없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들이 일하는 가정집, 건설 현장, 물류센터, 가구공장, 조선소, 돼지 막사와 깻잎 농장에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숙련 노동자이며 필수 인력으로 존재성을 인정받는다. 사실 41만 명이 넘는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의 존재는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적인 하청 체제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이다.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불법’ 체류 박멸이란 구호만큼이나,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고, 동시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이직이 드물고, 이들을 위한 복지나 통합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정부의 추방 위협과 ‘호의적인 방관’이라는 폭력적 왕복 운동 안에 놓인 존재다.

내가 만난 미등록 이주민들은 동네 역사를 다 꿰고 있는 지역 전문가이며, 공장의 ‘반장님’이며,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자이다. 이들은 현재의 장소를 자신의 생추어리로 만들며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와 인종 차별주의에 맞서 나간다. 한국 사회는 이들의 역사를 청취하고 응답할 적절한 시기를 매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미등록 체류 신분에 대한 사면 제도의 도입과 합법화를 통해 그림자 존재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를 원했지만 ‘인간’이 왔다.”라는 스위스 태생의 독일 극작가 막스 프리쉬(Max Frish)의 유명한 말처럼 이주의 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권, 시민권, 좋은 삶을 포함한 윤리적 질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을 생추어리 시티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처럼 보기’를 멈출 때 가능한 일이다.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 체류라는 고정된 틀에만 가둬두면, 우리는 적대라는 높은 장벽만을 쌓아갈 뿐이다. 미등록 이주민의 삶을 영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강요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국민이란 특권은 어떻게 권리로 옹호될 수 있을까?

이주민과 선주민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을 함께 만들어내는 존재로 견고한 경계의 틈새와 균열에서 창의적 만남을 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역동성은 지역 침체를 막고, 지역의 생활 세계를 돌리는 윤활유가 된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우리 모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잘 살아남의 근거지인 지역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함께 살기, 즉, 공거의 가능성을 모색할 때다. 공거는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전형적 위계질서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경청·마주함·상호 관여의 감각과 윤리로 지역이라는 공동의 집을 키워간다는 의미다.

최근 트럼프가 ‘생추어리 도시’에 진입해 대규모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잡아들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영주권자를 추방하겠다고 보란 듯이 이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를 벌인다. 실질적으로는 이주민의 지혜와 노동, 그리고 음식, 춤과 노래 등의 문화적 풍요로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주자가 사회 위협’이라는 강령으로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정치적 환상을 부추긴다. 1% 상층부의 권력 남용, 특혜, 권위주의, 계엄령, 미디어 독점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어떤 위대한 국가를 꿈꿀 수 있을까? 의존과 불안정, 공존과 폭력, 평등과 우월의 혼란스러운 스펙트럼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공거의 미학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내 지역을 생추어리 시티로 상상하며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자.

미등록 이주아동,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미등록 체류자라는 것이 학교에 가는 문제나 단속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해도 사실 어릴 때는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 점점 자라면서는 자격증을 딸 수 없다는 것과 수능을 못 보는 것이 아쉬웠고 여행도 못 다니고 학교 갈 때마다 혹시 단속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 사실 미등록 신분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나는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자신의 체류 상태를 모르고 지내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된 후, 부모에게 사실을 듣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학교 행사와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다른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자신만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체류 자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이 없어 건강보험 수가의 3~4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국제 수가를 적용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조기 종결하고, 한편으로는 강제퇴거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의료 개입마저 꺼린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로부터 배제될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릴 경우 자신에게는 오히려 ‘외국’인 부모의 나라로 강제퇴거당하는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이주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배제와 단절의 경험에서 오는 위축과 무력감,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과 2042년 사이 내국인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배경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34만 명에서 2042년 47만 명으로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이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배제한 채 우리 사회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포용과 상생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한 논의여야 한다. 다행히도 2025년 3월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 2028년 3월까지 3년 연장되었다. 향후 이들의 지속 가능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 또한 서둘러야 한다.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요?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을 놓쳤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법이나 의학 같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이 말처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들의 출구 없는 미래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인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주영
C 면

영화

<춘몽> <꿈의 제인> <메기> <야구소녀> <브로커> 외

드라마

<MBC 역도요정 김복주>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JTBC 이태원 클라쓰> <OCN 타임즈> 외

수상

2022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 <브로커>
2020 뉴욕아시아영화제 국제 라이징 스타상 <야구소녀>
2019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 <야구소녀>
2018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메기>



김의태
B역

연극

<애도의 방식> <연어> <불장난> <머핀과 치와와> <변심>
<올가의방> <사,육> <산란기>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외

영화

<사라> <막내가 서른이야> <반신불수가족> 외



아마르볼드
헨리 역

연극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

드라마

<스틸러 : 일곱 개의 조선통보> <신의 구슬> <SUITS>







연습일지

✓ 지역 알기-리서치 과정

인물의 출생 국가 알아보기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대본 첫머리 작가 노트의 내용 일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세 등장인물의 출생 국가는 출연 배우의 출생 국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이 연극이 우리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현실, 그리고 커뮤니티 내부의 계급과 이민 문제를 깊이 있게 반영하는 성찰의 관문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창작진은 2025 한국에서의 <생추어리 시티>를 위해 인물별 출생 국가를 설정하여 작품 속 미국 사회와 그와 연결된 이민자들의 사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출연 배우들이 직접 여러 나라를 순위에 두고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각자 맡은 인물의 출생 국가와 인물과 관련된 부모님의 지역 등 인물 배경을 설정하였다.

G: 멕시코인 아메리칸(Mexican-American)

B: 필리피노 아메리칸(Filipino-American)

헨리: 몽골리안 아메리칸(Mongolian-American) 부모님을 둔 이민자 2세

[출생국가 리서치 참고자료]

G. 김민경. 「이민과 국경: 국제이민을 통해 본 멕시코 국경의 특수성」, 2014

B. 영화 <죽음의 항해>

유튜브 「미국에 사는 필리핀 사는 사람들 이야기」

헨리. LEMON PRESS. 「외국 거주 몽골인 수」 그래프

✓ <우리 안의 인종주의> 관습과 클리셰를 교란하기
-이진아 연극평론가

인종주의를 다루는 연극 속 시도들,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출연진과 창작진이 현시대 연극은 인종주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세계 사회를 놓고 국가를 넘어 문화 개념에서의 인종주의, 미국 사회가 만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작품 보는 시각을 넓혔다.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는 9.11 테러(2001.9.11) 이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9.11 테러 직후부터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이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 속에서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G와 B를 제도화된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개념에서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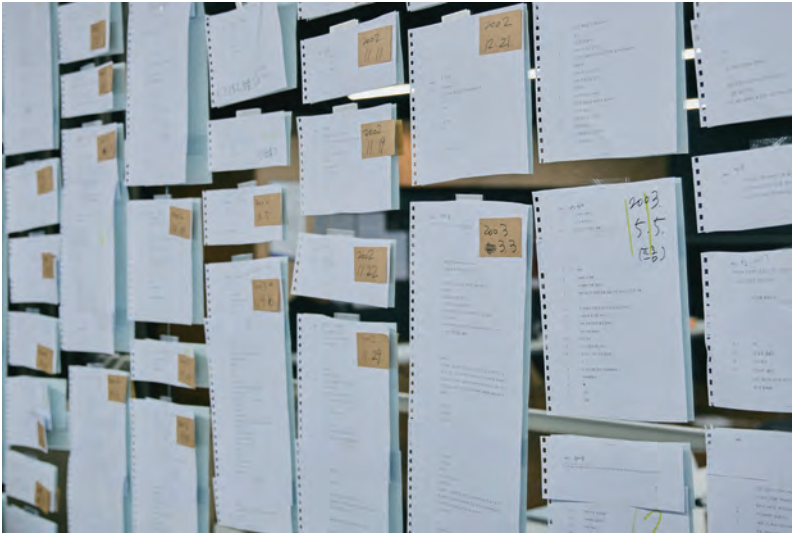
- 조건들을 지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설득하는 것.
- 조건들과 특징들을 가지고,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무대적 특징, 배우의 조건,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관객과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 이 작품을 2025년 4월-5월, 대한민국 서울 두산아트센터에서 왜 올리는가.
: 작품은 20년 전의 미국 이야기를 다루지만, 20년 후의 한국 이야기와 대동소이하다.
: 한국에도 미등록자 아이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 대상 나이가 되었을 때 여타의 형편들로 등록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한 번도 발 디뎀본 적 없는 낯선 나라로 추방될 위기에서 살고 있다.
: 우리가 한국에서 본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나와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감각할 수 있게끔 던져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야기 속 이민자들, 실제 무대 위 외국인 배우를 보면서 우리 작품 속 주제를 더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장면별 흐름알기-작품 톺아보기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80여 개의 장면들을 연습실 벽에 직접 오려 붙여 한눈에 우리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순차와 역차의 시간을 이해하고 장면별 장소와 날짜, 시간을 추론해보며 장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연습일지-썬 연습부터 공연까지

작품 전반에 놓인 2000년대 초 미국 사회와 이민자들의 삶, 인물 개개인의 출생 지역에 따른 역사 등 세밀한 자료 조사가 있었던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거쳐 80여 개의 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짧게는 한 문장, 길게는 5페이지 정도 되는 1부의 다양한 장면 속 단발적인 것 같은 말들을 진실하게 발화하고, 살아 있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을 찾아갔다. “빈 무대. 이후, 어쩌면 놀라운 일이 무대 위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마티나 마이옥 작가의 문구처럼 두 명의 배우는 빈 무대 위에서 마음을 지양하고 리얼리티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대신 G와 B의 무대 위 존재함에 집중했다. 짧은 호흡으로 쌓아 올린 1부를 지나 2부에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 사실적인 대도구들과 소품들로 연습했다. 생존, 소속, 위협, 차별, 정체성 불안, 사랑, 우정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 인물의 역동적인 흐름을 관객들과 나누려 연습하고 있다.

[리서치 참고자료]

기사

이선옥.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고향 한국에서 좌절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BBC KOREA*, 2025.2.5

김소연.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매일경제*, 2024.08.30

Julia Lawlor. “If You’re Thinking of Living In/The Ironbound; A Home Away From Home for Immigrants.” *The New York Times*, 2004.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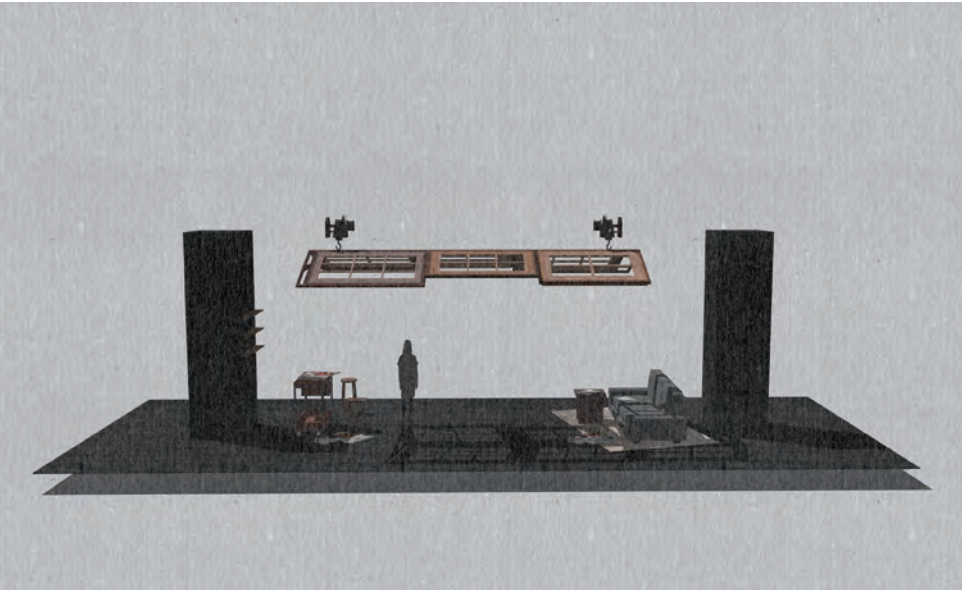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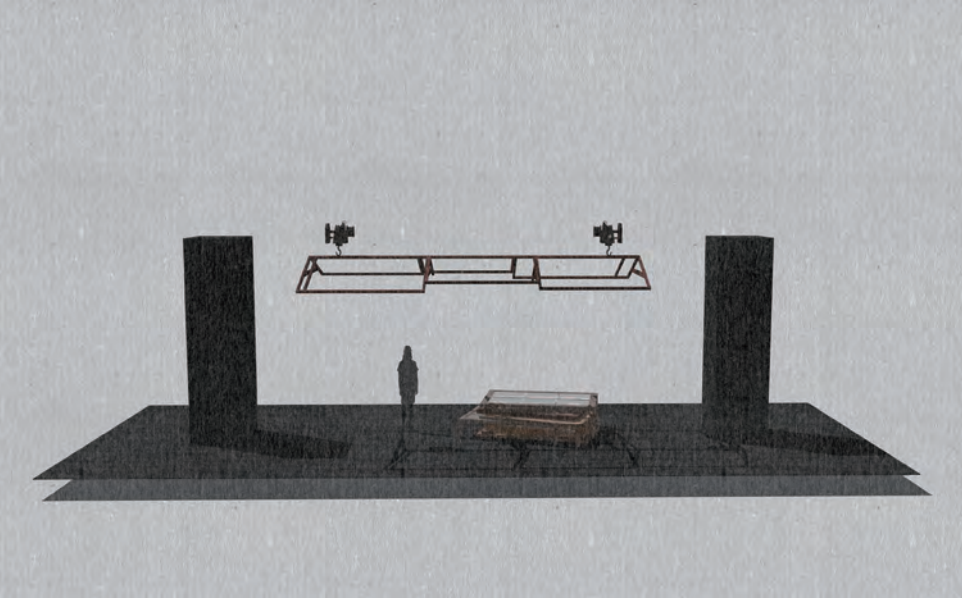
영상

유튜브 「Prom 2004 Sterling High」

유튜브 「Los Galls Taqueria(Newark, California)」

유튜브 「이웃이 미국인 나라, 멕시코의 고난」

유튜브 「Immigrant Visa for a Spouse of a U.S. Citizen | IR1 Visa Interview」



본 작업은 인물 G와 B가 공유한 반복적 일상의 배경과 그 파편화된 기억의 전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인물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Missy Elliott의 *Work It*과 같은 반문화적인 힙합과 *NSYNC, Britney Spears 등 이성애·백인 중심의 프롬 파티 음악을 삽입하여 콘트라스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두 인물의 관계성과 배경 사이의 긴장감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인터뷰 연습 장면 역시 음악적 질감의 변화를 통해 강조될 수 있도록 전개해 보았습니다.

[음악 목록]

Missy Elliott - *Work It*(2002)

*NSYNC - *Bye Bye Bye*(2000)

Britney Spears - *Stronger*(2000)

Kylie Minogue - *Can't Get You out of My Head*(2001)

Céline Dion - *Sorry for Love*(2000)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by Martyna Majok

4.22-5.1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마티나 마이옥(Martyna Majok)

번역 유은주

운색 유은주 이오진

연출 이오진

출연 이주영 김의태 아마르볼드

조연출 김성령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인 송지인

무대제작 wa stage(와스테이지)

(대표 조환준 | 제작·설치·철수팀 이종민 윤진상
정병문 이범용 임학균 김대영)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 작화팀 박지원 이진경 이재형)

무대전환 김승래 박준영

조명디자인 신동선

조명팀장 홍주희

조명오퍼레이터 홍유라

조명크루 김채원 김희수 이하은 정찬영 홍유라 홍유진

음악·음향디자인 지미 세르

음향오퍼레이터·음향크루 박영현

영상기술감독 김석기

영상크루 김강민 김동민 민성오

의상디자인·제작 EK EK COSTUME(대표 이은경)

의상팀 최새봄 강소랑

분장디자인 자미 일론(대표 정지윤)

분장팀 김다혜

소품디자인·제작 이송이

액팅코치 및 자문 윤소희

작품 자문 이진아

접근성 기획·운영 플랫폼 안녕(대표 이청)

접근성 매니저 이청

한글자막해설 디자인 이수림

한글자막해설 오퍼레이터 성다인

수어번역 이래봄(대표 명혜진)

수어통역 지혜원 우지양

수어감수 조희경

수어자막 오퍼레이터 곽지수

현장 수어통역 윤하원

터치투어 제작·운영 이청

음성해설 대본 구지수 김내원 김혜영

음성해설 배우 장호인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사진(프로필·설정·연습·공연) Studio AL(대표 김윤희)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영상(공연 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 콘텐츠 제작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프로그램북 협력 에디터 김상욱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한나래 박지희 김지영

티켓 이희정 김지은

사무 유은우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운서 이예인

교육기획 정다운 이보라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전경미

조명 황동철 양은지 김수민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김예지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권도이 기나연 김나연 김상윤 김수빈 김하나 남연수

남혜민 송해원 신아영 유진아 윤아진 이승규 이채민

이하은 이현지 임소은 임승현 전윤희 조수빈 지해민

차승준 하수영

두산아트센터 2025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9-2025.2.23

뮤지컬 **라이카** 3.14-5.18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6.3-9.14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1.9-1.11

연극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넌 기록** 1.16-1.18

연극 **감정 연습** 1.23-1.25

뮤지컬 **달리, 갈라** 기획전 2.20-2.22

연극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2.27-3.1

연극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3.6-3.8

연극 **물과 뼈의 시간** 3.13-3.15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3.20-3.22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연극 **생추여리 시티 Sanctuary City**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공동기획

극단 작은방 | 연극 **견고딕걸** 3.29-4.13

글과무대 | 연극 **번아웃에 관한 농담** 7.19-8.3

DAC Artist

박주영 | 연극 **마른 여자들** 9.9-9.27

강동훈 |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 10.28-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이오진 신작** 11.25-12.13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5 1.22-3.8

노혜리 개인전 4.2-5.1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Ringing Saga** 6.4-7.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6-9.13

두산갤러리 기획전 10.15-12.13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8-2.17, 7.3-8.9

두산아트스쿨: 미술 4.3-4.24, 11.4-11.25

두산인문극장: 강연 4.7-6.30

두산아트스쿨: 리서치 4.14-8.25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두산아트센터 투어 10

Studio DAC 프로그램 4-12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6-1.23

두산아트랩 공연 5.7-6.4

공동기획 6.9-7.9

시각 예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6-1.19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1-5.4

두산아트랩 전시 6.2-6.15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